



착공·비전·로드맵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관련 착공보고회'에 앞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과 함께 착공 계획, 비전·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10월 첫 삽 뜬다

광주시·현대백화점 착공 보고회

2027년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

지역 최초·최대 미래형 복합쇼핑몰

자연·문화·역사콘텐츠 '新랜드마크'

쫄시장 "떠나지 않는 광주 만들것"

광주 옛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지역 최초·최대 규모 미래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쇼핑을 넘어 예술·문화·자연·역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목표로 오는 10월 첫 삽을 뜬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27년 말 준공해 2028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속도감 있는 복합쇼핑몰 추진에 대한 광주시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그룹은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개최했다.



'더현대 광주' 외부 조감도

착공보고회는 지난 6월18일 건축허가 승인에 따라 착공까지의 추진 경과, 비전·로드맵, 내·외부 콘텐츠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공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이 ▲건축 전반에 대한 개요·추진 경과 ▲착공 등 향후 공사 일정 ▲공사가림막에 표현되는 디자인방향성 ▲쇼핑·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주요 공간 구성계획 등 세부 콘텐츠를 발표했다.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내부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도 시청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천955㎡(8만2천

569평), 영업면적 10만800㎡(3만평),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총 주차대수 2천652대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자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이다.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그룹이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을 담은 사업 제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광주 현지법인인 '더현대 광주'가 설립됐고 올해 6월18일 건축허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현대 광주'의 착공을 알리는 부지 내 공사 가림막은 단순히 공사 현장을 가리는 벽이 아닌 광주시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된다. 회사 측은 가림막을 '더현대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다.

현대백화점이 자체 제작한 영상에는 광주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더현대의 독창적 역량을 더한 'New Originality(새로운 독창성)'

라는 공간 철학과 복합쇼핑몰의 공간 전략이 소개됐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은 "더현대 광주는 광주 최초이자 최대의 미래형 복합쇼핑몰"이라며 "더현대 서울 이상의 공간 혁신과 호남의 문화유산을 집약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 광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고객이 함께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볼 때 신속한 행정 지원이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고 투명·공정하게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떠나지 않는 광주 만들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Today	
광주 '동구 인문학당' 접근성 개선 절실	6면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	15면
KIA '좌원영간' 이의리 복귀카운트다운	16면

美 상호관세 피했지만

‘품목관세’ 車산업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오는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표함에 따라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지난 4월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25%를 부과받아 올해 하반기 미국 현지 판매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8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6만7천462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 중 내수는 8만6천139대, 수출은 18만1천323대다.

광주공장 생산 물량 중 수출비율은 68%인 가운데 수출 물량 중 미국 수출은 60% 이상(11만여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내수와 수출을 합한 전체 물량 대비 약 43% 수준이다. 상반기 수출 물량은 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부과 전후를 포함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 늘어난

현대차·기아 4월부터 25% 적용 수준이다.

실제 지난

하반기 판매 감소 현실화 우려 해 광주공

장 생산 물

량 중 수출비율은 68%였고 미국 수출은 50% 이상(18만여대)으로 내수·수출을 합한 전체 물량 대비 약 38%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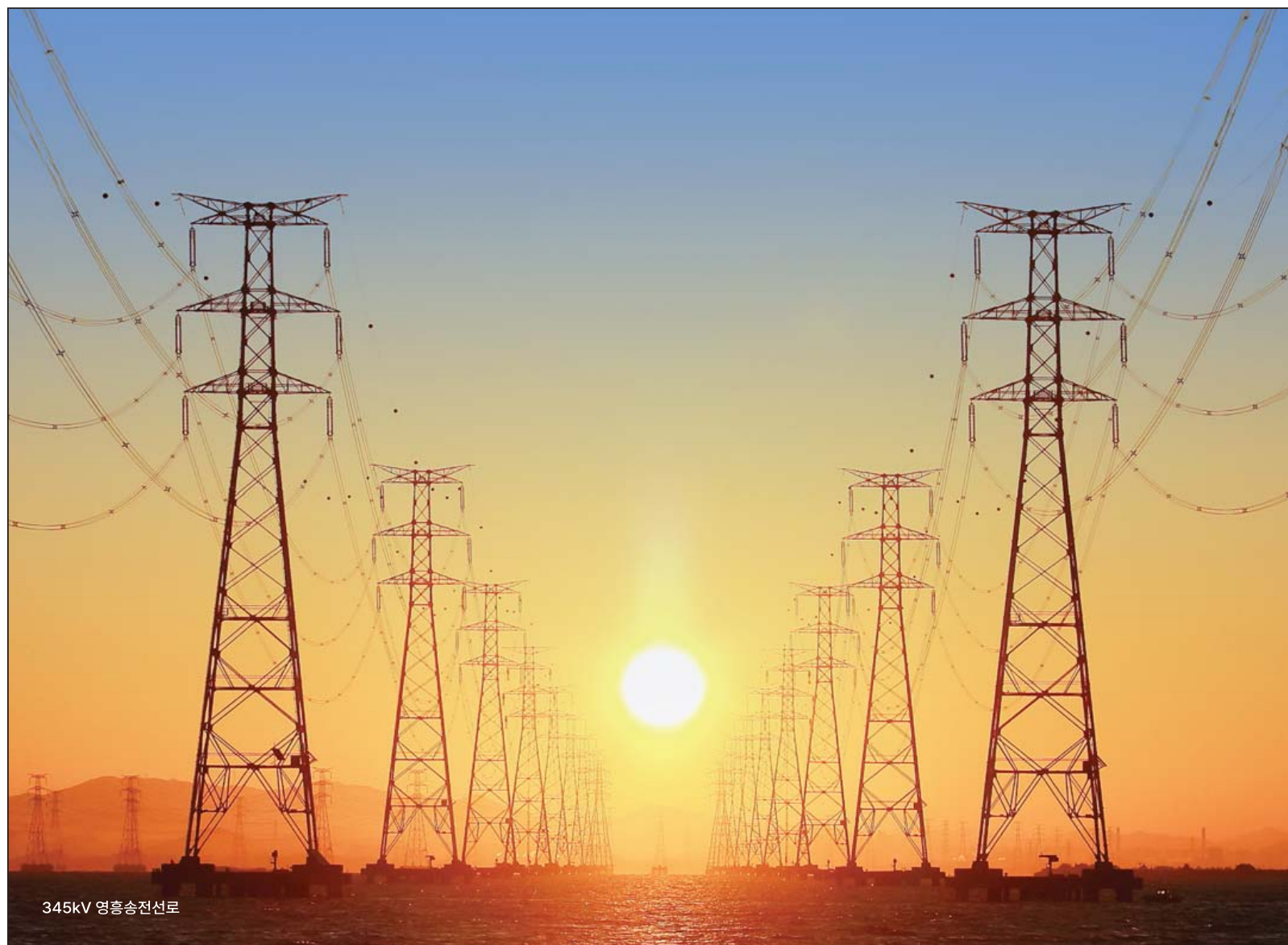
이처럼 상반기 미국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전 생산 물량을 미국 시장에 빠르게 판매하는 등 재고 소진에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월 이후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 영향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본격화되면 가격 경쟁력 하락과 판매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동결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은 이미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자동차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차질없이 미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4월3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영향은 몇 개월 지나봐야 파악할 수 있다"며 "미국 현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345kV 영흥송전선로

함께 밝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전력망 확충에서 시작됩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한국전력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